

[베트남_호치민] 중국산 농산물 베트남산으로 둔갑 유통

2021년 5월 12일, 호치민지사

□ 중국산 딸기, 달랏 거쳐 베트남산으로 둔갑

- 최근 베트남 주요 농업 생산지로 알려진 달랏 공항에서 214kg의 딸기 13박스를 조사한 결과 허용치보다 약 3배가 높은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 딸기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박스같이틀 통해 베트남산으로 둔갑하려고 한 사례라고 보도 되었음
- 중국산이 베트남으로 들어와 베트남산으로 둔갑한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, 특히 과실류 뿐만 아니라 감자, 고구마 등 구근류와 채소류 또한 달랏을 거쳐 베트남산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음
- 베트남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, 농약 허용치의 최대 3배에서 17배 까지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와 베트남 내에서 판매유통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냉장을 하지 않아도 약 3주동안 외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, 외관의 색이 좋아 현지 소비자들 이 정확한 원산지 파악을 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
- 현지 소비자들은 자국 내 농산물중 달랏산을 최고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달랏 내에서 중국산 둔갑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



달랏 공항 발각 중국산 딸기



중국산 딸기

출처 : thanhnien.vn

□ 현지인들의 원산지 불분명 농식품 구별법

-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반감도가 높은 현지 소비자들의 특성상, 중국산이 베트남으로 들어오지만 타국산 혹은 베트남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둔갑 등이 용이한 재래시장 혹은 또는 로컬시장(GT)에 주로 유통됨

- 원산지 불분명 상품 유통에 대한 현지의 관리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, 최근에는 현지인들은 중국산과 베트남산의 차이점 및 구별법 등을 인터넷 기사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음
- 하지만 가격에 대하여 민감한 대부분의 저소득층 소비자는 재래시장에서 원산지 확인을 거치지 않은 후 구매하는 경향이 큼



각 지역별, 국가별 딸기 특징 비교 기사



시장 유통 중국배

출처 : greenspace.com

□ 시사점

- 중국산이 베트남산으로 둔갑되는 사례는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, 일부 재래시장에서는 한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사례 또한 발견되고 있음
- 이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수출업체는 QR코드를 입혀 재배과정 및 수확과정을 보여주는 마케팅 및 상표권 등록을 통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aT 현지화지원사업 상표권 등록 사업을 활용하여 이를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

□ 출처

- 「Đâu tây Trung Quốc lại vào đà lạt qua sân bay Liên Khương」, thanhnien.vn, 2021.4.26.
- 「Cách nhận biết dâu tây đà lạt và dâu tây trung quốc」, plo.vn, 2020.7.26.